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전(70CE)을 기준으로 한 헤롯시대 예루살렘 성전산 복원도

성서학연구소 베블리아 www.bibliakorea.com

티로포에온 골짜기(Tyropoeon Valley) '티로포에온'은 그리스어 표현으로, 직역하면 '치즈 제조업자들의 골짜기'임. 요세푸스(Flavius Josephus)의 《유대전쟁사(The Jewish War)》에 처음으로 등장. 이 골짜기 주변에 유대 전역에서 모여든 낙농업자들이 치즈를 만들고 판매하던 대규모 치즈 시장과 상업 지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당대에 불리던 통칭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 당시 이 계곡은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가장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일어난 '중앙 시장 거리'(거리 폭 9m) 안 들과 바깥 들을 구별하는 담(소레그): 이방인 출입금지 지역의 경계 이방인의 들(바깥들)에서 유대인 전용 구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담. 유대교 전통 명칭은 소레그(סורג). 사람 가슴 정도(약 3규빗, 1.3~1.5m). 담 중간중간에는 일정 간격으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새겨진 '성전 경고판(Temple Warning Inscription)'이 붙어 있음.

- ① 로빈슨 아치(Robinson's Arch) 성전산 아래 계곡에 위치한 '티로포에온(Tyropoeon) 중앙 시장 거리'에서 성전 마당(이방인의 들)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든 대형 공공 계단
- ② 바클레이 문(Barclay's Gate) 지면 레벨에서 문을 통과하면 성전 마당(이방인의 들) 내부 바닥 높이까지 지하 터널과 오르막 계단을 통해 위로 걸어 올라가도록 설계. 요세푸스의 기록에 등장하는 서쪽 문 중 하나로, 당시 예루살렘의 하루 도시 및 중앙 시장에서 성전 내부로 직접 진입하는 주요 대중 통로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 현재 여성들이 기도하는 방이 있는 남쪽 끝인방들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음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전(70CE)을 기준으로 한 헤롯시대 예루살렘 성전산 복원도

※ 이 복원도는 성전의 남서쪽에서 성전을 바라본 가상도입니다. 이 가상도는 고고학 발굴물들과 문헌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율슨 아치(Wilson's Arch) 현재 '통곡의 벽' 남서 기도 구역 왼쪽 내부(지붕이 덮인 실내 공간)로 들어가면 아치를 볼 수 있음. 티로포에온 계곡(Tyropoeon Valley)을 가로질러, 제사장과 귀족들이 살던 상부 도시(Upper City, 현재의 유대인 지구 언덕)와 성전 마당(이방인의 들)을 평평하게 연결해 주던 거대한 진입 다리. 베들레헴 근처의 '솔로몬의 못(Solomon's Pools)'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따라 약 2.4km를 흘러오던 '하부 수로(Low-Level Aqueduct)'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와 율슨 아치를 따라서 성전산 내부로 진입.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정결탕과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④ 워런 문(Warren's Gate)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으로 현재 서쪽벽 지하 터널로 들어가면 볼 수 있음. 문을 지나 계단을 따라 지하터널을 통해 성전 마당으로 진입.
- ⑤ 서쪽 벽의 거대 석조(The Western Stone) 길이: 약 13.6미터 (44.6 feet), 높이: 약 3.3미터 (10.8 feet), 깊이(두께): 약 3.5미터 ~ 4.6미터 (11.5 ~ 15 feet) 사이로 추정, 무게: 약 570~600톤 사이
- ⑥ 홀다 문(Huldah Gates) 《미쉬나 미도트(Mishnah Middot 1:3)》에 따르면, "성전산 남쪽에는 두 개의 홀다 문이 있어 출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기록. 명절(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기간에 수만 명의 유대인 순례자들이 성전 안으로 진입하는 주 진출입로. 오른쪽(동쪽)에 있는 삼중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서쪽)에 있는 이중문으로 나오는 일방통행(오른쪽 진입, 왼쪽 퇴장)이 기본 원칙
- ⑦ 왕실행각(Royal Stoa) ① 상업적 목적의 공간. 환전 및 제물 매매 ② 사법과 정치적 목적의 공간. 유대교 최고의 사법·정치 기구인 산헤드린(Sanhedrin) 공의회가 성전 파괴 수십 년 전, 성전 안쪽에 있던 '다름은 돌 방(Chamber of Hewn Stone)'에서 이 왕실행각 동쪽 끝부분의 넓은 홀로 자리를 옮겨 재판과 회의를 소집 ③ 사회적 목적. 공공 집회 및 소송의 장소
- ⑧ 홀다 문과 연결된 출입구 홀다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계단은 이방인의 들로 연결됨 (약 80m)
- ⑨ 솔로몬의 행각(Solomon's Porch) 랍비들의 가르침과 토론의 장소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성전에서 태양을 피해 쉴 수 있는 공간
- ⑩ 안토니아 요새(Antonia Fortress) 성전을 감시하고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요새. 북서쪽, 북동쪽, 서남쪽 세탑의 높이: 약 23-25m, 남동쪽 탑의 높이: 약 32-35m(성전마당에서 약 25m 높이). 평상시 로마군 1개 보병대(Cohort, 500-600명)가 상주하고 명절에는 추가 병력이 증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의 옷을 안토니아 요새에 보관하고 통제.

※ 성전의 건축과정

- ① 20/19BCE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63/64CE에 완공되었다(총 건축기간 ±83년).
- ②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일부 해체해야했다. 헤롯이 계획한 성전의 크기는 하스모니아 시대의 성전보다 3배가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 크기와 계획이 너무나 커서, 완공이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새 성전을 지을 모든 건축 자재를 성전산 마당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기 전까지는, 기존 성전의 돌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성전공사가 시작되기 전 1,000대의 마차를 준비하고, 10,000명의 숙련된 장인을 선발하며, 제사장들을 위한 예복 1,000벌을 준비하여 제사장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 ③ 헤롯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승인받은 무역 독점권(나비테아 향료 길 통제 등), 아스팔트 광산 운영권, 그리고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자산과 정규 국고를 투입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오히려 공사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수많은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축 기간 동안 예루살렘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 ④ 예루살렘 성전산의 면적은 약 144,000m²이며, 축구장 20개의 면적과 비슷하다.
- ⑤ 144,000m²라는 광활한 평지를 만들기 위해 헤롯은 엄청난 토목 공사를 감행했다. 특히 남쪽과 동쪽은 지형이 급격히 낮아지는 기드론 골짜기였기 때문에, 성전산 남동쪽 모퉁이를 채우기 위해 지상에서 무려 40미터가 넘는 거대한 축대를 쌓고 내부 공간을 흙으로 채우거나 아치형 지하 홀(일명 솔로몬의 마구간)로 버티게 만드는 공법을 사용했다. 성전산의 남서쪽 모퉁이는 티로포에온 골짜기 도로로부터 성전산의 바닥까지 높이 26-28m이고, 남동쪽 모퉁이는 기드론 골짜기 바닥부터 오벨까지 12-15m, 오벨 기단부터 성전산의 바닥까지 43-45m (총 55-60m)이다.
- ⑥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확한 틈새 맞춤으로 성전벽을 만들었다.
- ⑦ 18,000명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되었다.
- ⑧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1,000명이 돌과 나무를 다듬고 만드는 훈련을 받아서 직접 건축했다.
- ⑨ 석재중 백색 석재 공급처 중의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 현재 '시드기아 동굴'(Zedekiah's Cave) 또는 '솔로몬의 채석장'이라 불리는 장소이다.
- ⑩ 성전 건축 완공(63/64CE) 후 6-7년이 지나 70CE에 로마 장군 티투스(Titus)에 의해서 파괴되었다.